

'나'라는 아집만 버린다면 거기 뭐 붙을 게 있겠습니까!

29면에서 계속

자식이다 하더라도 동구 바깥에서 고향이다. 그런데 말합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건 무엇일까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다가 엄마 아버지의 정자와 난자를 비롯해서, 즉 말하자면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삼합이 혼란이 될 때에 이 업식도 그 영혼에 따라서 첩보가 됩니다. 첩보가 돼서 바로 인간이 형성된다면 그 또 역시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죄 지은 것을 부르짖지 말고 현실에 나오는 것을 소멸시키면서 자기가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역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어찌다가 남의 파발에 들어가서 발을 못 쓰게 만든다 할 때에 고삐를 탁 쥐면서 '야, 너 그 남의 파발에 들어가서 엉망이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 하고 탁 채는 그 마음이 바로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마음으로 다스리면서, 모든 일체 내가 살아나가는 거, 일거일동 모든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안되는 거는 바로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선 굴러서 놓는 겁니다. 돌아가는 대로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굴러 놓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마음 도리를 알려면 자기 주처에 놓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형성시켰고 자기를 이끌어 가지고 다니는 자기 주처를 믿어야 합니다. 자기 주처의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맡겨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듯 밝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악을 초월하는 공부라지만...

문) 이 마음공부가 아무리 선·악을 초월하는 공부라지만 약한 인연을 만났을 때 선으로 대하 기란 너무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좋을까요?

답) 이렇게 하세요. 이게 전력이 있는데 이 가설만 만들어 놓고 전력이 없으면 불이 안 들어오죠? 그런데 이 세상만사가 전부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다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을 켜는데 그쪽에 어떻게 불이 안 들어오겠느냐 이겁니다. 나하고 별저 근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 주인공에 탁 맡겨 놓고 그냥 지켜보고 있어 보세요. 그리고 만나결랑 부드럽게 말해 주시고요. 뭐 이 몸뚱이 가지고 얼마나 산다고 그러니까. 모두 가지고 갈 건가요? 내 몸뚱이도 버릴 텐데 뭐 가지고 갈 게 있다고 그렇게 아웅다웅 그래야만 됩니까? 편안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걸, 재산을 하늘땅만큼 가졌다 하더라도 내 이 진실한 마음하고는 바꿀 수 없어요. 그게 부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 주인공,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주인공에 다 맡겨 놓고 부드럽게 '우리가 한마음으로 그저 규합돼서 열굴 붙이지 않고 살게 해 주는 것도 너야? 이 영원한 친구야!' 이렇게 하세요. '한마음 친구야!' 이래도 좋고요.

그런데 선이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선이 되지.' 이런 생각조차도 그냥 다 놔요. 행이 중요하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행하다 보면 그만 가지, 당신 나무에서 익은 실과가, 한 실과가 만 가지 맛을 낼 때 그 즐거움이란 말로 못해서 누군가는 하늘을 보고 한 나절을 웃고 땅을 보고 한 나절 울었대요. 어때요? 그래서 앞뒤 터진 대피리 소리는 우주 법계를 두루 하더라도.

좀 그렇게 무조건 당신을 믿고 당신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모든 것을 그저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마음, 그러려면 공부할 수 있겠죠.

항상 애독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딸 둘 낳고 한동안은 다복하게 살았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바깥으로만 돌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달래 보았지만 저로서도 비겁합니다. 어쩌하면 좋을지요.

답) 여러분 가정에 화목을 가져 오는 데는 속이 상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잘못하면 남자가 잘못하면 어떠한 것을 무릅쓰고 '야! 주인공 당신 밖에는 해결을 못할 거야.' 남편이 술을 아주 과하게 먹는다가나 또 안 들어온다가나 또는 성질이 이상해서 그렇다가나, 또 병이 들렀다가나 그래도 '당신밖에는 해결 못해. 당신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 하고선 그냥 거기가 맡겨 놓고 말로는 좋게 해 드려주세요. 언제나 따뜻한 데 사람이 고이게 돼 있지 병행하고 추운 데 고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질 못하고 만날 만나면 싸우고 좋

나는 어떤 때는 그림니다. '야, 네가 때에 따라서는 여자도 됐다가, 또 동생도 됐다가 누이동생도 되고 딸도 되고 어떤 땐 할머니도 되고, 어머니도 돼 드려라. 그렇게 안 하면 따뜻하질 못해서 때에 따라서 속상하면 나가게 돼 있다. 그런데 나갔다가도 들어오게 돼 있다 이거야. 속상하면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나 얼마나 가정이 화목해지고 좋을 수 있겠느냐.' 그러죠. 사람이 화목하게 질서 있게 또는 능력 있게 자유스럽게 아주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진짜 이 도리를 알아야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사랑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거 참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러면 화목한 회전이 돼서 여러분이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삼 배도 제대로 못 올렸는데...

문)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절에는 가끔씩 가곤 합니다. 절에 가면 기본적으로 법당에 가서

나라는 것만 죽는다면 뭐 붙을 게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 주인공에 '나'도 놓고, 나오는 대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대로,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대로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하나하나 놓으세요.
다 거기에 놓는다면 하나하나가 자동적으로 진화돼서 보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놓지 않는다면 자기가 악업 선업 지은 대로 독 안에 들어도 면칠 못하고 절대로 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좌선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 편안해야 좌선이고, 망상이라는 것도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참나를 발견하게 이끌어 주는 바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망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망상이라고 하는 관념 그것도 놔 버려야죠. 야,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분별이 없으면 목석인데 목석이 돼도 아니 되니까 분별을 하더라도 분별을 분별이라고 하지 말고 망상을 망상이라고 하지 말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만이 열반으로 직결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렵게 괴롭게 사시지 말고 편안하게 사시라 이거죠. 사람이 한 번 이 세상에 났다가 한 번 옷 벗기는 마찬가지로 옷 벗기 전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좀 알고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바깥으로만 돌아오
문) 안녕하세요. 현대불교에 실린 스님 법문을

은 말 안 나가고 이렇게 되니 가정이 뭐가 따뜻하겠습니까. '야, 들어가면 또 그럴 걸.' 하고 나가 버리죠. 나가서 술 한 잔 먹고 이리저리 돌다가 들어오거든요. 바깥에서 속상하는 일이 있으면 안에 와서 풀어야 할 텐데 그렇질 못하다 이겁니다.

그 뜻을 아주 잘 짐작하세요. 언제나 사랑하면서 이 말로 좋게 얘기 해 주면, 아무리 속 썩이는 말을 하고 속 썩이는 일을 하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보, 당신 참 피로하네요." 하고선 좋게 얘기 해 주고 주인공에다가 하소연을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무척 잘못하고 들어왔는데 그걸 변연히 알면서도 좋게 말해 주거든. '이거, 이거 내가 자중할 수밖에 없구나.'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력하다 보면 '야 이거 안되겠구나.' 그때는 사람이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따뜻한 가정으로, 피로하면 자꾸 따뜻한 데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맛이 누구의 맛도 아니에요.

부처님 전에 삼 배를 올리게 되는데 어느 날 제가 절에 갔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삼 배도 제대로 못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좀 걸렸는데 그레도 삼 배는 제대로 해야 올렸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답) 어느 법당에 가더라도 여유가 있을 때는 칠 배를 해도 좋고 백배 배를 해도 좋고 삼 배를 해도 좋고 그렇지만은 상황이 급할 때는, 이게 융통성이예요. 상황이 급할 때는 일 배를 하면서도 삼천 배 한 값어치가 나오죠. 상황이 급할 때는 내가 일 배로 삼천 배를 일 배로 규정을 지으란 말입니다. 동글러서, 동글린다는 건 무슨 뜻이나 하면 부처님의 모습도 내 모습, 부처님의 생명도 내 생명, 부처님의 뜻도 말씀도 내 뜻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 나와 부처님, 일체제불 모든 걸 동글리라는 거죠.

보통 법당에 가면 또 많이 모셔 놔요? 그러면 사람이 공부하는 데 너무 어지러워서 오히려 공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뇌야 하고 저기

도 뇌야 하고, 지장이나 관세음이나 이렇게 모두 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장보살도 관세음보살도 칠성부처도 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해신이나 산신이나 이런 것도 따로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하나에 전부 계시다는 얘기에요.

여러분이 다리가 아프다 할 때 이런 공부를 아주 깊이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아이구, 다리 아프!' 하고선 이렇게 손을 대면 보현의 손이 돼 버려요. 아시겠어요? 보현신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생겨서 '아이구, 이거 주인공,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가 관을 하면 그냥 찰나에 관세음보살로 화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의 의식들이 전부 그 공부를 하는 데 다 같이 따라 주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조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건지니 그 보살의 이름들이 다 근본은 하나요. 그러니 그 근본에서는 모든 보살이,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 회장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다 그 회사 직원이지 만 직원이 아니거든요. 사장 대리, 회장 대리 이렇게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또 용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기 그 마음속에서 보살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생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가만히 있는 게 부처인데 자기 마음을 내놓지 않으면, 보살로 내러놓지 않으면 일을 못하겠거든요. 무의 범에 의해서 공법으로 평등공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보살이라는 이름을 자기 그 마음속에서 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명이 짧으면 칠성부처님한테 갔다 놓고 빌어야 하지 않습니까. 좋은 데로 못 가면 지장보살한테 갔다 놓고 빌어야죠? 무슨 일이 안되거나 그러면 관세음보살한테 가서 놓고 빌어야죠? 일이 엉망으로 됐을 땐 신장한테 갔다 놓고 빌어야죠? 이렇게 하면 공부하는 데는 아예 그 근처에 가 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법당에 들어가더라도 그냥 신장이든 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칠성보살이든 주해신이든 주산신이든 내가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했으면 한 가지만 가지고 전부 동글리세요. 마음으로 전부 동글려서 일 배를 해도 통신이 된다는 얘기도. 하나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통신이 안돼요. 이 세상에 나오고 멀해서 가고 하는 그 교차로의 구멍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대로 그 하나밖에 없어요. 저승을 탐험하고 무의 세계를 탐험하려면 그 구멍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의 그 보배라는 그 자체가 나고 들고 나고 들고 하는 게 말입니다.

우리가 큰일이 생기면요, 일체제불이 우주와 삼세 세계와 전부 하나로 통신이 돼서 찰나찰나 이렇게 나고 들어요. 이 공부 한 사람들은, 그러니 보이는 것만 가지고 노력하지 말고 안 보이는 50%를 먼저 채워서 100%를 만들도록 해 보세요.

법당 및 사찰 전각 마루 불사

틀어지거나 파손된 마루바닥을 시공초기의 모습으로 시공 및 복원합니다.
10여년간 각 시도 대형 체육관 및 관공서, 학교, 공연장 등 나무로 되어있는 마루를 원목 그대로 살려 코팅하는 업체로서, 이제 佛緣을 입어 스님들께 도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보양 작업

*마루철거 및 하부 보강

*샌딩 마침

*틈메꾸기

*도장작업 2회

*완료

법당 및 요사채 등 온돌이 필요한 곳에 안전하고 빠른 시공 설치 하여 드립니다

원목 온돌마루

강화마루

필름온돌

전기온돌